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dolescents' sex-role trait, attachment with parent on the self-efficac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이신숙**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Lee, Shin Soo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nsumer Science, Suncho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sex-role, attachment with parents on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281 students.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examin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It was shown that the student have a high level attachment to their parents and especially to their fathers. The androgyny was expressed a high among the students' sex-role trait, The students' self-efficacy level was relatively high.
- 2) It was expressed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adolescents' sex-role trait, attachment with parents and self-efficacy. Especially a high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s' sex-role trait and self-efficacy.
- 3) The students' self-efficacy leve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x-role trait, attachment and gender.
- 4) The relative influence toward the students' self-efficacy was shown in the order of impotence as follows : sex-role trait, attachment with a mother and gender.

Key Words : adolescents' sex-role trait, attachment, self-efficacy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으로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심리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며, 사회적으로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의식 그리고 성취감을 갖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갈등, 혼란을 겪으며 그들이 처한 사회에 반항심을

갖기도 한다. 더군다나 최근 자녀를 적게 낳는 사회적 현상은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여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부모의 이혼 및 별거로 인한 가정의 불안정성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선과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이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청소년의 주변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는 청소년이 그동안 형성해 왔던 성역할 특성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성연, 1985; 최진아, 1991). 성역할 특성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에 적합하게 성유형화된 사람이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바람직하게

* 이 논문은 2008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Shin Sook Lee

Tel: 061) 750-3673, Fax: 061) 750-3670:

E-mail: lsi@sunchon. ac.kr

여겨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고정화된 성역할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이상적인 성역할 모델로서 심리적 양성성이 추천되고 있다. 이는 인간 잠재력의 최대한 발현이라는 점과 현대사회에 적합한 적응력을 갖게 되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점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남성적인 것이, 여자는 여성적인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여겨 왔으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성에 관계없이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을 융통성있게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력을 높이고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도덕적 판단력도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역할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특히 인간발달 초기에 갖는 부모와의 애착은 이후에 갖게 되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의 사회적응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Bowlby(1969)는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 또는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아들은 어머니를 신뢰하며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안정감은 이후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나아가 인지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송명자, 2004). 특히 최근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적 문제행동과 밀접하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복영, 2007).

이와 같이 성역할 특성 및 인간발달 초기에 맺는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의 인지적 기반을 강조하는 추세에 의해 부모와의 관계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관련짓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문혁준, 1999).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응과 자아실현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며 한 개인의 사회생활의 활력과 자신감을 주고 더 나아가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Bandura(1977) 역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개인은 환경이 요구하는 도전을 이겨내려 더 노력하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쉽게 포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 있을 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발달시킨다(이복영, 2007).

자기효능감을 다루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누어 각 학문마다 접근방식을 달리하며 그 원인을 살피고 있다. 가족학 분야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기대,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사회적지지, 가족기능을 그 영향변

인으로 밝히고 있으며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습동기, 진로결정, 학업성취, 문제해결, 학교적응 등 지적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정연·이창숙, 200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인 중학생의 성역할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에 따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성역할특성

성역할(sex role) 특성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서 특정 지워질 수 있는 여러 특성, 즉 태도, 가치, 행동양식 및 인성특성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속해있는 이 사회는 남성과 여성 각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기대되어지는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남자에게는 지배적이고 문제해결에 있어 인지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기대되며 여자에게는 감정적이고 지지적이며 민감하고 의존적인 특성을 지니며 표현 지향적이길 원한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기의 성에 적합한 행동, 의견, 감정 속에서 성장하며 성유형화(sex typing)과정을 통해 적절한 성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성유형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동일시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 이론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먼저 동일시 이론에서는 동일시 과정(identification process)을 통해 동성의 부모를 무의식적으로 닮아간다는 것이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성역할 특성이 관찰과 모방을 통한 사회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며 문화적으로 성고정화가 되는 것은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강화뿐 아니라 대리의 학습경험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인지 이론에서는 아동의 발달에 따라 인지구조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며 인지 발달에 의해 성차를 이해하는 시도 속에서 성유형화가 이루어진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론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남·여의 성역할 개념을 강조하여 남자는 남성성을, 여자는 여성성을 갖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그러나 Pleck(1975)는 성유형화의 특성이 청소년기에 그 절정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성역할 경직성이 감소되어 전통적 성역할 분류에서 넘어선 자기(self)의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Jung(1954) 역시 성인기 이후에는 억압되었던 반대성의 특성으로 전환되어 남성은 여성적인 특성을, 여성은 남성적인 특성이 발현되면서 노년기에는 남녀 모두 양성적으로 되어 간다는 이론을 펼치고 있다. 즉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이중 구조는 연령증가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 극단인 양성성이라고 불리우는 복합적인 역할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한편 Bem(1974)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단일 연속선상에서 서로 반대되는 양극으로 생각했던 기존의 사고를 깨뜨리며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두 개의 개별차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함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성적인 사람이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의 해방 등이 가져 온 사회적 구조의 변화로 현대사회에서는 양성성을 소유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Hall과 Halberstadt(1980)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7-32%의 학생들이 양성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Lamake(1982)의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인 고등학교 학생의 25-32%가 양성적이었다고 하였다.

양성적인 이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소유하기 때문에 성유형화된 사람들보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자아개념이 높다고 연구들(정옥분, 1986; 최인아, 1988; Lemake, 1982; Schiff & Koopman, 1978)은 밝히고 있다. 즉 한 개인이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지님으로써 도구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을 함께 갖게 되며 기능적, 친화적 특성을 함께 갖게 됨은 기능상의 유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남녀의 성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양성적인 성역할에 대한 기대는 더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

1) 애착(attachment)의 개념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출발은 애착형성으로 비롯되며 초기 애착형성의 질은 그 이후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다. 애착(attachment)이란 용어는 Bowlby(1958)가 영아와 어머니 간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1960년대 이후 발달심리학의 여러 내용 중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의 하나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Bowlby는 애착을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하게 하는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인 결속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고 어머니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며 이러한 안정감은 영아가 지속적으로 어머니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킨다. 또한 영아의 이러한 욕구가 어머니로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충족되면 영아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안정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며 과민한 불안, 지나친 애정의 요구, 복수심, 죄책감 등 심각한 정서장애가 예측된다(윤순희, 2005).

영아가 갖는 애착행동의 형성에 관해 여러 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설명해 왔다. 기본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 성향이라고 가정하며 학습이론에서는 영아의 애착행동은 본능보다는 학습된 행동으로 설명한다. 한편 동물행동학적 접근에서는 애착행동을 격리되어 양육되지 않는 모든 종(鍾)에서 나타나고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본능적인 반응의 결과로 설명한다. 또한 기질가설에서는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는 영아의 기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kagan, 1984)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는 순한 기질의 아기에 비해 격리불안을 강하게 표출하므로 애착형성이 불안정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이론을 살펴볼 때 인간은 생후초기에 애착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고 영아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애착형성 과정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 아기가 갖는 애착행동과 더불어 시작되는데 Ainsworth 등(1978)은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애착행동의 첫 번째 단계는 출생 후 3주간에 해당하는 단계로 사람을 비롯한 사회적 대상을 선호하면서 특정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애착을 보이는 시기인데 대표적인 애착형태로 미소, 웅얼이, 반사행동 등을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는 생후 3개월 이후 6-8개월까지의 단계로서 영아가 어머니와 타인을 구분하면서 몇 사람의 특정대상에게 애착행동을 보인다. 세 번째 단계는 생후 6-8개월 이후부터 18-24개월에 속한 시기에 나타나는 애착행동으로서 비로소 특정대상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 특정대상과 떨어질 때에는 격리불안이 나타나고 영아의 애착행동도 적극성을 띠게 되는 접근추구(proximity seeking) 양상으로 변한다. 마지막 단계는 생후 24개월 이후로서 애착대상이 다양해지면서 가족과 주변의 다양한 인물, 즉 형제, 할아

버지, 할머니, 정규적인 양육자 등에게로 확대된다. 그 후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행동은 감소하며 또래와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해진다.

이와 같이 애착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중요성 때문이다. Sroufe(1983)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더 사회적이고 긍정적이며 유치원을 비롯한 다른 사회환경에서 정서적으로 더 성숙함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들을 다시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친구와 더 밀접한 우정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을 평가한 상담교사도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유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인지발달과의 관련도를 조사한 Cassidy(1988)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6세경에 보다 긍정적인 자아인지를 보이며서도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인정한 반면 불안정회피 유형의 유아는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초등학교 시기에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적이 높았다(송명자, 2002에서 재인용).

영아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성장, 발달하게 되나 애착의 대상은 어린 시절 누구와 가깝게 지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도 아기의 출생 후 3일경부터 밀접한 애착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영아의 1/3이 아버지와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함을 보고하였다(Elkind & Weiner, 1978). 따라서 영아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부모와 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으며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이 불안정할 때 아버지와 애착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애착의 형성방법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차이가 있는데 어머니와는 일상적인 양육을 통해, 아버지와는 함께 놀이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버지와 빈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서구에 비해 아버지와 애착형성이 낮으며 대조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생 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은 아동기나 청소년 이후 성인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안정되고 편안한 애착관계의 형성은 중요하다.

2) 부모-청소년 자녀 간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형성은 영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인간발달의 전 생애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며 발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정기지(secure base)'로서 역할을 하며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고통을 받을 때 부모와의 애착체계는 재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Bowlby는 강조한다.

청소년기는 부모보다는 또래와의 애착, 더 나아가 이성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성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애착대상이 변화하는 발달상의 특징을 보인다. 결국 청소년기에 보이는 과도기적 발달 특성이 이 때 획득해야 하는 분리(detachment)와 재 애착(re-attachment)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은 부모가 곁에 있다는 물리적인 존재이기보다는 필요시 언제나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이진숙·정혜정, 2004).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애착이 영아나 아동기에 갖게 되는 부모와의 애착과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상호성(mutuality)을 통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

둘째, 애착대상에 대한 신체적인 접근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은 안전기지로 생각한다.

셋째, 애착대상이 부모로부터 또래로 변하게 된다(Weiss, 1982).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던 Greenberg 등(1983)은 부모와의 애착이 친구와의 애착보다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과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isher(199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전애착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질투, 갈등, 의존, 불만족감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가족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대학 1년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PPQ: Parental Relationship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부모-자녀 간의 유대정도와 기능을 조사하였던 Kenny(1987)는 대학생 역시 부모를 안정기지로 삼으며 이러한 애착은 그들의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김영혜(2000) 역시 청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은 그들의 바람직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 단계인 성인기의 적응을 위한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한 이진숙·정혜정(200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적응 사이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애착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관계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그 강도와 빈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갖는 안정감과 신뢰감은 그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중요한 적응기제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예측이다(Bandura, 1977). 따라서 이것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 특히 어떤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자신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는 축소된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최윤희, 2002).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과 유사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념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신감이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자기효능감은 믿음의 강도 뿐만 아니라 인지된 능력의 구체화된 수준까지를 의미한다.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과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자신에 대한 확신감을 갖고 자신을 능력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도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이루어지는 폭 넓은 개념이며 이때 갖는 긍정적 자아개념이 자기효능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속성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가치 기준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린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자기효능감은 자기 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사회학습 이론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인간이 행하는 현재 및 미래 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심개념이기도 한다. 즉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행동의 동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목표에 이르기까지 노력의 양, 지속력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1; Bandura et al., 1988; Hollahan et al., 1996; Litt, 1988)은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지적 수행 및 심리적 적응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포부 수준을 높게 설정했고 전략적 융통성을 보였으며 높은 지적 수행을 달성했고 자신의 수행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였다. 또한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고통을 참는 인내력이 높고, 스트레스도 더 적게 받으며, 어려운 과제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경험했던 활동영역이 더 넓어지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 방식은 그들의 삶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기능력에 대한 평가인 자기효능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불확실성을 갖게 되어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피적으로 되기 때문이다(이복영, 2007).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목적 지향적인 개념이기에 인간의 사고, 정서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청소년기는 활기와 생명력으로 성인기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갈등과 방황과 혼동의 시기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갖는 심리·정서적 특징을 '질풍노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시기에는 부모의 절대적 권위와 양육과 보호에 대해 불만을 느끼며 반항하며 새로운 관계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전에 갖았던 부모와의 애착의 강도는 낮아지고 대화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부모는 청소년인 자녀를 온정적으로 수용하며 그들의 행동을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청소년기를 여전히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자신감과 독립심을 유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가 지혜롭게 자신을 발달시켜 나간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문혁준(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안정적 관계는 새로이 맞게 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능케 한다. 이진숙·정혜정(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학교 적용의 정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 신향숙·장윤옥(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 친근하고 수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취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높았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을 조사한 이정연·이창숙(2002)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라고 밝히면서 31%의 설명력을 지녔다고 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도 부모 및 또

래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이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Greenberg 등(1983)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친구와의 애착보다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발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아기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초등학교 시기에 전반적으로 성적이 높았다는 Sroufe(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Cassidy(1988)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6세경에 보다 긍정적인 자아인지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인정하였으며 Ainsworth(1982)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에 있을 때 새로운 기술의 습득, 환경에 대한 탐색 그리고 자신감의 발달이 촉진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 관계는 아동이 위험과 역경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개인의 사회적응과 자아실현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고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며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남도 Y시에 위치한 5개 남녀공학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조사는 2006년 3월 27일부터 4월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교과목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1, 2, 3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18부를 제외한 총 281부를 최종적인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남자 중학생은 151명(53.7%)으로 여자중학생의 130명보다 약간 많게 표집되었다. 응답 학년은 1학년이 104명(37.1%), 2학년이 92명(32.7%), 3학년이 85명(30.2%) 순으로 1학년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 조사대상 학생들의 성역할 특성은 양성성이 190명(6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성성 20.9%, 미분화 6.7%, 여성성 5.0% 순으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	151	53.7
	여	130	46.3
학년	1학년	104	37.1
	2학년	92	32.7
	3학년	85	30.2
성역할특성	양성성	190	67.4
	남성성	59	20.9
	여성성	14	5.0
	미분화	19	6.7
계		281	100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성역할 유형으로 양성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전의 조사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환경 및 또래와 학교환경 등이 남녀모두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강조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양식을 구가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성역할 특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Bem이 고안한 성역할 측정도구를 정옥분(198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남성성과 여성성 문항에 관한 각 10문항과 성역할과 관계없는 10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역할특성 척도 역시 '항상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가끔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평가하였다.

한편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에서 얻어진 점수에서 4종류의 성역할 유형을 추출하기 위하여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을 사용한 결과 남성성점수의 중앙치는 27.5점, 여성성점수의 중앙치도 27.5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성역할 특성을 4유형을 분류하였는데 남성성점수가 27.5점 이상이면서 여성성점수가 27.5점 이상이면 양성성유형, 남성성점수가 27.5점 이상이면서 여성성점수가 27.5 점 이하이면 남성성유형, 남성성점수가 27.5점 이하이면서 여성성점수가 27.5점 이상이면 여성성유형, 남성성점수가 27.5점 이하이면서 여성성점수가 27.5점 이하이면 미분화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성역할특성 척도의 신뢰도는 남성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이었고 여성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이었다.

2) 부모-자녀 간 애착 척도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만든 애착척도 개정판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 IPPA-R)을 본 연구자가 중학생의 이해력 수준에 맞게 23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동학 전문가 1인과 중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2분의 선생님을 통하여 제작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IPPA-R은 의사소통의 질, 상호 신뢰감, 소외감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내용의 척도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각각 조사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점수의 합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알아보았다. 애착척도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의 질과 상호신뢰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 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부, 모와의 애착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각 척도의 문항의 수는 2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 모 애착점수의 중앙치는 69점이다. 그러나 소외감 영역은 각 문항 점수의 합이 많을수록 소외감의 정도는 높아 부모와의 애착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와의 애착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Cronbach $\alpha = .78$ 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Cronbach $\alpha = .67$ 이었다.

3) 자기효능감 척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차정은(1997)의 척도를 본 연구 대상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중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2분의 선생님을 통하여 제작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사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등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4점)', '대체로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문항의 합인 총점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9$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배경변인,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 변량분석(ANOVA),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와의 애착, 자기효능감의 정도

청소년인 중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다음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와 같이 중학생의 부모와의 애착점수는 154.9점으로 애착점수의 중앙치인 138점(최대: 230점 - 46점: 최소)에 비해 높아 부모와의 애착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중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점수는 80.1점이었고 어머니와의 애착점수는 74.8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수준이 어머니와의 애착수준보다 높았다. 그리고 애착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점수가 어머니의 애착점수보다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정도가 어머니와의 애착정도보다 더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녀와 접촉하는 시간이 어머니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자녀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높은 애착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

<표 2> 부모와의 애착, 자기효능감의 정도 (N=281)

변인	구분	하위 영역		총점
		구분	M(SD)	M(SD)
부모와의 애착	부 애착	신뢰감	36.6(6.1)	80.1(8.9)
		의사소통	30.7(5.3)	
		소외감	12.8(3.6)	
	모 애착	신뢰감	34.8(7.0)	74.8(9.8)
의사소통		26.4(5.6)		
소외감		13.5(2.8)		
자기 효능감	자신감		18.5(2.9)	58.4(7.8)
	자기조절		24.5(4.0)	
	과제난이도선호		15.5(2.6)	

료된다. 즉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조사대상 중학생의 애착정도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높았다는 이복영(2007)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또한 조사대상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58.4점으로 자기효능감 점수의 중앙치인 55점(최대: 88점 - 22점: 최소)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나타나 조사대상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보인다. 자기효능감의 영역별에 있어서는 자기조절능력이 가장 좋다고 평가하였고 과제난이도 해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연·이창숙(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배경변인,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정도

배경변인,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다음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성역할 특성($F=15.69, P<.001$), 어

머니와의 애착($F=12.10, P<.001$), 아버지와의 애착($F=3.05, P<.05$), 성별($F=2.53, P<.05$)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중학생의 성역할 특성에 있어서는 양성성인 경우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미분화인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개념을 조사한 최진아(1991)의 연구결과와 자존감과 관련있는 성역할 특성으로 양성성을 주장한 Bem(1974), Spence와 그의 동료(197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적 유형의 개인이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적인 남성적 특성과 민감하고 온정적인 여성적인 특성을 공유하므로 다른 유형에 비해 환경 적응도도 높고 성취 지향적이며 책임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애착정도가 높은 청소년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애착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의 집단 간의 차를 살펴볼 때, 먼저 어머니와의 애착에 있어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자신감의 순으로 집단 간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표 3> 제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변인	구분	사례수	자기 효능감			
			자신감 M(SD)	자기조절 M(SD)	과제난이도선호 M(SD)	전체 M(SD)
성별	남	151	18.7(2.8)	24.7(4.1)	15.7(2.5)	59.0(7.5)
	여	130	18.2(1.5)	24.0(3.9)	15.1(3.0)	57.4(6.6)
	F 값		1.53	1.66	2.98*	3.05*
학년	1학년	104	18.2(3.0)	15.4(2.7)	24.3(4.2)	58.0(5.7)
	2학년	92	18.6(2.8)	15.4(2.6)	24.6(3.9)	58.5(7.3)
	3학년	85	19.3(2.9)	15.5(2.6)	24.8(3.8)	59.6(8.1)
	F 값		2.72*	0.36	1.02	1.58
부애착	상	126	19.4(3.5)	25.3(3.5)	16.2(2.4)	61.2(7.9)
	하	155	18.2(3.6)	23.8(4.2)	15.5(3.1)	57.5(9.2)
	F 값		2.43*	3.02*	1.92	2.53*
매착	상	138	19.0(2.9)	25.5(3.9)	16.2(2.5)	60.7(4.8)
	하	143	18.1(3.1)	23.5(4.5)	14.8(3.0)	56.4(8.8)
	F 값		3.67*	9.99***	10.91***	12.14***
부모매착	상	146	19.3(2.9)	26.1(3.8)	16.2(2.6)	61.5(7.6)
	하	135	17.9(3.1)	23.6(4.4)	5.1(2.8)	59.2(6.2)
	F 값		2.85*	5.65**	2.29*	6.66**
성역할 특성	양성성	190	19.0(2.8)	25.5(3.8)	16.0(2.5)	60.4(7.3)
	남성성	39	17.9(2.9)	23.2(3.0)	14.8(2.5)	55.7(6.9)
	여성성	14	17.6(3.4)	22.0(4.6)	14.6(2.9)	54.3(8.8)
	미분화	19	17.2(3.0)	20.3(3.6)	13.3(2.5)	50.8(7.1)
	F 값		4.33*	17.45***	8.93***	15.63***

* $P<.05$, ** $P<.01$, *** $P<.001$
애착 하집단 $<M+SD/2<$ 애착 상집단

애착에 있어서는 자기조절,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집단 간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와의 애착은 자기효능감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더불어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의 차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진아(1991)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개념이 더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정연·이창숙(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남학생보다 낮다는 점을 볼 때 여학생에 대한 자기효능감 증진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남녀간의 집단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학생들의 인지적 학습능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하겠다.

3. 배경변인,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중학생의 학년,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와 같이 중학생의 학년,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r = .23(P<.001)$ 로 나타났으며 부, 모로 나누어 살펴볼 때 아버지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r = .17(P<.001)$, 어머니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

계는 $r = .24(P<.001)$ 로 어머니와의 애착정도가 자기효능감과 더 밀접한 관련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커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유지선, 2004; 윤순희, 2005; 장휘숙, 1997; 지수경, 2001; 이복영, 2007; 최은실,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애정과 편안한 보살핌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자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부모가 제공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경향이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배숙진(1998), 이강선(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중학생의 성역할 특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r = .37(P<.001)$ 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와의 애착보다 자기효능감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독립적이며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양성평등적인 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을 유연하게 가져올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중학생의 학년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제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제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진단과정으로 잔차분석을 통한 Durbin-Watson 계수를 통한 잔차분석을 한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값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IF의 범위가 $1.22 < VIF < 1.74$ 로 10이상일 때 발생하

<표 4> 제 변인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변인	자기 효능감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도선호	전체	
학년	.13**	.05	.02	.08	
부 애착	신뢰감	.14*	.21***	.13*	.20***
	의사소통	.14*	.17**	.07	.16**
	소외감	-.15**	-.10***	-.13*	-.15**
	전체	.12*	.20***	.28	.17**
모 애착	신뢰감	.15**	.25***	.20***	.25***
	의사소통	.10	.16**	.19***	.18**
	소외감	-.09	-.14**	-.15**	-.16**
	전체	.13*	.23***	.21***	.24***
부모 애착	.14**	.24***	.16**	.23***	
성역할 특성	-.20***	-.39***	-.29***	-.37***	

* p<.05 ** p<.01 ***p<.001

는 다중공성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제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다음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model 1에서는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제시되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모 애착($\beta = .2118$), 성별($\beta = -.0861$)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7%이었다. 그 중 어머니와의 애착은 5%의 설명력을 나타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model 2에서는 성역할 특성이 발현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제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역할 특성($\beta = -.3447$), 모 애착($\beta = .1818$), 성별($\beta = -.0755$)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발현하는 성역할 특성은 13%의 설명력을 나타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이 양성적일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남학생일 때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model 1과 model 2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이 보이는 자기효능감은 성역할 특성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들이 갖는 성역할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료된다.

중학생의 성역할 특성이 양성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는 양성성의 특성이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가 중앙치 이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발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 최진아(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하경(1991)의 연구에서도 양성성을 지닌 중년여성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장 적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과거 연구들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변수로 주로 개인적 변인에 초점을 두었으나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 결과로 가족환경변인,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날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생의 성역할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이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의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정도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학생들의 성역할 특성은 양성성이 190명(6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성성 20.9%, 미분화 6.7%, 여성성 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인 중학생의 부모와의 애착점수는 154.9점으로 애착점수의 중앙치인 138점에 비해 높아 부모와의 애착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아버지와의 애착점

<표 5> 자기효능감에 제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변인	model 1			model 2		
	B	β	partial R ²	B	β	partial R ²
성별	-1.4105	-0.0861	0.02	-1.2368	-0.0755	0.01
학년	0.6694	0.0700		0.5081	0.0531	
부애착	0.0299	0.0191		0.0167	0.0191	
모애착	0.1688	0.2118**	0.05	0.1449	0.1818**	0.04
성역할 특성				-3.0975	-0.3447***	0.14
회귀상수		44.19			51.76	
F		5.24***			12.67***	
R ²		0.07			0.18	

가변수화(Dummy) 성별 : 남=0, 여=1,

성역할 특성 : 양성성=0, 그 이외=1

* P<.05, ** P<.01, *** P<.001

수는 80.1점이었고 어머니와의 애착점수는 74.8점으로 아버지와 애착수준이 어머니와의 애착수준보다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58.4점으로 자기효능감 점수의 중앙치인 55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나타나 조사대상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역할 특성,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r = .23$ 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r = .17$, 어머니와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r = .24$ 로 어머니와의 애착정도가 자기효능감과 더 밀접한 관련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학생의 성역할 특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r = .37$ 로 부모와의 애착보다 자기효능감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성별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r = .10$ 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자기효능감과 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성역할 특성, 어머니와의 애착, 아버지와 애착, 성별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성역할 특성이 양성성인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와 애착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제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 애착, 성별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7%이었다. 그 중 어머니와의 애착은 5%의 설명력을 나타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성역할 특성이 발현되는 상황에서는 성역할 특성, 모 애착, 성별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발현하는 성역할 특성은 13%의 설명력을 나타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의 성역할이 양성적일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남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성역할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양성적인 특성을 지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조사대상 중학생의 대부분이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은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 모의 직업유무, 학교, 매체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성 사회화에 중요함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기간이 그 누구와 함께하는 기간보다 길고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대상이 부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느 경험보다 강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황에 맞는 융통적인 역할을 기대하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양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매우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에릭슨도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대상인 어머니나 양육자와의 관계여부에 따라 그들이 성장한 후에 갖게 되는 대인관계의 성공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 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하여 결혼준비교실, 예비부모교육, 참부모를 위한 교실 등을 통한 부모됨 교육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의미로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요즘 가정이 불안정하여 가정이 해체되거나 긴장이 야기되고 있어 부모-자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속한 청소년을 위해서 부모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부재 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조부모, 친·인척 등의 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수양조부모 맺어주기 또는 대리부모자 연계해 주기 등을 통해 부모에게 찾지 못한 애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는 문제가 발생된 청소년을 돕는 경우 곁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청소년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어린시절의 경험을 파헤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이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표집지역의 선정에 있어 전라남도 Y시에 소재한 5개 중학교만을 표집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중학생이 갖는 개인적인 변수를 성별, 학년, 성역할 특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직업, 경제상태 등 다양한 요인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 애착, 자기효능감

참고문헌

- 김영혜(2000). 청소년 부모-자녀 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 박영신(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자녀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2.
- 박성연(1985).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고. 생활과학과 가정. 서울: 이화여대 가정대학.
- 박영신 · 김의철(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서울: 교육과학사.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2004). 발달심리학. 학지사.
- 신항숙 · 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 유지선(2004). 여대생의 진로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순희(2005).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영(2007).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 · 이창숙(200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10.
- 이진숙 · 정혜정(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47-61.
- 장하경(1991). 중년기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감.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정옥분(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심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2), 27-39.
- 지수경(2001). 청소년의 부·모 또래애착과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2002). 청소년의 자아상과 가정의 심리·가정적 변인과의 관계. 동아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최은실(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최인아(1988).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 정체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아(1991). 가정환경변인·성역할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D.S.(1982). *Attachment : retrospect and prospect*. In Parke, C. M., & Hinde, J. S.,(Eds.). *The Placement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 Basic Book.
- Ainsworth, M.D.S., Blehar, M.,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ndura, A.(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Cioffi, D., Taylor, C. B., & Brouillard, M. F.(1988). Perceived self-efficacy in coping with cognitive stressors and opioid activ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79-488.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Cassidy, J.(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Elkind, D., & Weiner, I. B.(1978).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 John Wiley & Song.
- Greenberg, M. T., Seigal, J. M., & Leitch, C. J.(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 of Adolescence*, 12(5), 373-386.
- Hall, J. A., & Halberstadt, A. G.(1980).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children : Development of the children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70-280.
- Hollahan, G. K. et al.,(1996). Self-efficacy : physical decline, and change in functioning in community-living elders : A prospective study. *The Gerontologist*, 51(5). 183-190.
- Jung, C. G.(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 Norton.
- Kagan, J.(1984). *The nature of the child*. New York : Basic Books.
- Kenny, M. E.(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Lemake, L. K.(1982). Adjustment and sex-role orientation. *J. of Youth and Adolescence*, 11. 247-259.
- Litt, M. D(1988). Self-efficacy and perceived control : Cognitive mediators of pain toleranc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49-160.
- Pleck, V. N.(1975). The mid-stage woman. *American J. of Nursing*, 75(6). 1019-1022.
- Schiff, E., & Koopman, E.(1978). The relationship of women's sex-role identity to self-esteem and ego development. *J. of psychology*, 98. 299-305.
- Spence, J. T., Helmeich, R., & Stapp, J.(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
- Sroufe, L. A.(1983). *Attachment and adaptation in preschool*. In M. Perlmutter(Eds.). *Development and policy concern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Development. 16. Hillsdale. NJ : Erlbaum.

(2008. 09. 30 접수; 2008. 11. 29 채택)